

광주·전남 서민 떨어진 내집 마련

LH, 7천가구 건설 연기

재정난 이유 국민임대·보금자리 1~2년씩

저소득층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더욱 멀어지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정난을 이유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기하고,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연한 데 이어 대표적 서민주택인 국민임대주택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도 무더기로 연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토해양부와 LH 광주·전남 지역본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광주·전남지역에서 추진 중인 국민임대주택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장 13곳 7278가구의 준공 시기를 1~2년간 무더기로 연기했다고 고시했다.

광주지역은 효천1지구 국민임대주택 2개 사업장 2195가구의 준공 시기가 당초 2013년 3월에서 2014년 4월로 13개월간 늦춰졌다. 또 효천2지구 보금자리주택 7개 사업장 3406가구도 내년 말 또는 2012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2013년 12월로 최대 2년간 뒤로 미뤄졌다.

전남지역은 해남 해리 국민임대주

■광주·전남 LH 주택건설 사업 계획 변경 현황

지구명	사업 유형	세대 수	당초	변경
해남 해리	국민	304	2012.12	2014.06
광주효천2 A-1	보금	950	2012.12	2013.12
광주효천2 A-2	"	365	2012.12	2013.12
광주효천2 A-3	"	648	2012.12	2013.12
광주효천2 A-4	"	466	2012.12	2013.12
광주효천2 B-1	"	432	2012.11	2013.12
담양 백동2	국민	601	2012.12	2013.12
광주효천2 B-2	보금	190	2011.12	2013.12
광주효천2 B-3	"	355	2011.12	2013.12
원도 군내	국민	406	2012.12	2014.12
고흥 남계1	"	366	2013.01	2014.09
광주효천1 A-1	"	549	2013.03	2014.04
광주효천1 A-2	"	1,646	2013.03	2014.04

자료 : LH 광주전남본부

택(304가구)이 2012년 12월에서 2014년 6월 1년6개월 연기됐고, 담양 백동2지구 국민임대(601가구)도 2012년 12월에서 2013년 12월로 준공시기가 1년간 연기됐다.

또 원도 군내 국민임대(406가구)는 2012년 12월에서 2012년 12월로 2

년간, 고흥 남계 국민임대(366가구)도 2013년 1월에서 2014년 9월로 1년 8개월간 준공이 미뤄졌다.

국민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60㎡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며, 보금자리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무주택자 주택 마련 등을 위해 특별법으로 세제 혜택과 규제를 완화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돕는 국가주택사업이다.

이처럼 저소득 서민들의 유일한 내집 마련의 수단인 국민임대와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이 무더기로 지연되면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

광주시 남구의 한 시민은 “저소득 서민들은 국민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는 실정”이라며 “방만 경영으로 재정난을 자초한 LH가 서민들의 꿈마저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지역의 수요를 고려해 국민임대·보금자리 아파트 준공 시기를 조정했다”며 “당분간 여유를 갖고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정목기자 jwpark@kwangju.co.kr



추석 대목 맞은 농산물시장

추석을 일주일여 앞둔 13일 광주시 북구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햇과일 등 각종 농산물을 담은 상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대목을 실감케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적 “北에 쌀 5천t 지원”

17일 개성 실무접촉 제의...시멘트 1만t 등 100억 규모

대한적십자사(총재 유종하)는 13일 수해 지원을 요청해온 북한에 쌀 5000t(5kg짜리 100만 포대)과 시멘트 1만t(40kg들이 25만 포대) 등 총 100억원 규모의 구호물자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를 통해 이같은 수해복구 지원 내용과 오는 17일 개성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제의하는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했다. <관련기사 3면>

유종하 총재는 이날 오전 한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 물자에는 쌀,

시멘트 외에 컵라면 300만개 등 생필품과 의약품이 포함돼 있으며, 홍수 피해가 심했던 신의주 지역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금 100억원은 대부분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되며, 쌀은 원활한 분배를 위해 5kg짜리 100만 포대로 전달할 계획이다.

유 총재는 쌀 지원 규모와 관련, “신의주 지역 수재민이 8만~9만명 정도로 알려졌다”면서 “쌀 5000t은 20만명을 기준으로 50일분 정도이며 매일가는 80억원 가까이 된다”고 설명했다.

유 총재는 또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대다수 신청자들이 노령이어서 긴급성을 가진 문제”라면서 “적십자사에서 협의를 최대한 빨리 종결하고 준비할 생각인데, 추석을 지나 10월 중에는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번 수해 지원이 이산가족 상봉과 상관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적은 지난달 26일 수해지원 의사를 처음 북측에 전달한 데 이어 같은 달 31일 지원 규모(100억원)와 품목을 구체화한 통지문을 다시 보냈으며, 북한은 이달 4일 답신에서 쌀, 시멘트, 장장비 등을 대신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SSM 규제 조례 제정 강행

상위법과 관계없이 추진...법정분쟁 가능성

광주시가 상위법과 관계 없이 지역 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방안을

담은 조례를 제정한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지역 내 18개 전통시장과 5곳의 특화거리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반경 500m 내 바닥면적 500㎡ 이상 SSM의 입점을 제한하고, 주거지역 내 SSM이 입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슈퍼마켓협동조합이나 상인대표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SSM 입점 사전 예고제’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가맹점 제한, 총량제 도입 등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이 다음달 중으로 광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

될 경우 지역 내 SSM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강력한 규제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향후 대형 마트와의 법정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14일 오후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각계 전문가와 시민, 시민, 상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확정 짓겠다”며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헌법 123조에 근거해 유통산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고위공무원 서울·영남 출신이 65%

이용섭의원 분석...광주·전남은 10%

행정기관 국장급 이상 1~3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위공무원단의 출신 원으로 구성된 고위공무원단의 출신 원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과 영남 지역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 6월 현재 고위공무원단 1500명의 출신 학교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 고교 졸업자 비중은 563명으로 37.5%, 영남지역 고교 출신은

410명 27.3%로, 양 지역 고교 출신이 전체의 64.8%(973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반면 광주·전남지역 고교 출신은 10.3%에 불과했다.

출신 고교별로는 경기고가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고 55명, 대전고와 전주고가 각 44명, 경북고·광주일고 각 38명, 서울고 37명 등 순이었다.

출신대학별로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수도권 소재 출신 대학 비중이 1206명으로 전체의 8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전남지역 대학으로는 전남대가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대 5명, 광주대 2명, 목포교대 1명에 그쳤다.

이 의원은 “고위공무원의 특정학교 및 특정지역 편중은 한국 사회의 학연·지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는 또한 계급과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당신만을 위한 비즈니스 호텔

·런치 스페셜 - 해물지리탕, 추어탕, 육개장
·특선해물뷔페 - 35,000

특선객만

·객 실: 전 객실 50% 할인
·웨딩홀: 웨딩패키지 할인 숙박권 증정
·돌잔치: 숙박권증정 및 패키지 할인

최순연 · 각종 세미나 대 · 중 · 소 연회장 완비

이당크관광호텔

예약문의 ☎(062) 227-8500
www.hiddinkhot.com

학교설립 56주년 (1954 ~ 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서남대학교가 『아산』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합니다!

의료(의과대학) · 간호 · 보건계열 및 경찰행정법학 특성화 대학!
2011학년도 수시모집/정시모집(가,나,다군)

- 의사국가시험 6년 100%합격
- 법학과 『사법시험 [51회] : 4명 합격』
- ROTC : 182학군단 아산 설치 (학년당 27명)
- 간호학과 2009년~2010년 국가시험 100%합격
- 경찰학과 : 경찰 특 · 공채 207명 합격

(모집인원 : · 의예과 51 · 간호학과 77 · 물리치료학과 72 · 작업치료학과 48 · 임상병리학과 36 · 치위생학과 36 · 방사선학과 12 · 응급구조학과 29 · 경찰행정법학과 230 · 사회복지행정학과 160 등 총 1,036명)

서남대학교
SEONAM UNIVERSITY
www.seonam.ac.kr
TEL : (041)539-5511